

스테픈 커리 “우리가 돌아왔다. 즐기자!”



▲ 트로피를 들고 우승 퍼레이드 즐긴 스테픈 커리.
사진=gazettenet.com

미국프로농구(NBA) 왕좌에 오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2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우승 퍼레이드 행사를 진행했다.

골든스테이트의 우승 퍼레이드는 축제 그 자체였다. 골든스테이트 팬들은 4년 만의 우승 퍼레이드를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커리에게 'MVP'를 연호했다.

이에 커리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돋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우승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 우리가 돌아왔다. 이제 즐기자!”라고 말했다.

골든스테이트의 정신적 지주 드레이먼드 그린은 “처음 우승한 동료들을 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선사한다. 우리는 여행에서 항상 처음의 느낌을 되찾고 싶어 한다. 나는 이 감정을 앤드류 위긴스, 조던 풀, 오토 포터 주니어 등을 보며 느꼈다. 올 시즌은 정말 놀라운 한 해였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 라며 팬들의 환호에 답했다.

서부 컨퍼런스 3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골든스테이트는 플레이오프에서 단 6패만 기록하며 암도적인 퍼포먼스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에이스 스테픈 커리의 활약이 눈부셨다. 커리는 플레이오프 22경기에서 평균 27.4점 5.2리바운드 5.9어시스트 3점슛 성공률 39.7%를 기록하며 자신이 왜 슈퍼스타인지 증명해냈다. 아울러 커리는 생애 처음으로 파이널 MVP를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희귀 증후군 나달, 윌블던도 제패할까

라파엘 나달(36·스페인·4위)이 윌블던 대회에 훨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STN스포츠'에 따르면 나달은 지난 6월 5일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르랑가로스에서 열린 프랑스 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카스퍼 루드(23·노르웨이·5위)와의 경기에서 3-0(6-3, 6-3, 6-0)으로 승리하며 왕좌를 차지했다.

이로서 22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한 나달은 20회식을 기록 중인 로저 Federer(40·스위스·68위), 노박 조코비치(35·세르비아·3위)와의 격차를 2회로 늘렸다.

다만 이날의 영광에도 나달의 다음 메이저 대회 출전은 불투명했다. 그가 윈밤에 발의 일부 뼈가 혈액 공급 부족으로 괴사하면서 발바닥 관절이 변형되는 뮬러



▲ 라파엘 나달. 사진=shutterstock

와이스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나달은 소염제로 가능할 경우 출전, 마취에 의존해야한다면 불출전의 의사를 밝혔다. 다행히 신경에 열을 가해 장기간 통증을 가라앉히는 고주파 절제술이 효과가 있어 그는 17일 윌블던 참여 의사를 밝혔다.

나달은 잔디 코트 적응 훈련도 하고 있다. 나달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잔디 코트 훈련을 하는 모습을 업로드했다. 프랑스오픈 직후만 하더라도 절뚝였던 그가 이날은 뻔뻔한 모습이었다.

나달은 한 해에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윌블던, US 오픈까지 그랜드슬램 4개 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캘린더 이어 그랜드슬램의 불씨도 살리고 있다.

올해 윌블던은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PGA 투어의 반격 상금 올리고 컷오프 탈락 없애고



▲ 제이 모나한 PGA 투어 캐미서너. 사진=pgatour.com

최근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리브(LIV) 골프에 선수를 뺏기고 있는 미국 프로골프투어(PGA)가 대회 상금을 크게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스포츠 동아'에 따르면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은 전날 PGA 투어는 향후 8개 이상 대회의 총상금을 2,000만 달러 이상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PGA 투어는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메모리얼 토너먼트 등의 대회 상금을 올릴 예정이다.

이 대회들은 PGA 투어의 간판급 대회다. 이들 대회는 현재 총상금이 600만 달러~1,500만 달러 정도다. 늘어나는 상금은 그 동안 PGA 투어가 쌓아놓은 유보금에서 충당하거나 타이틀 스폰서가 더 낸다는 계획이다. 이는 리브 골프에 대한 대응책이다.

리브 골프는 이미 필 미켈슨과 더스틴 존슨, 세르히오 가르시아 등의 스타 선수를 영입했다. 이에 PGA 투어는 위기에 놓였다.

PGA 투어는 상금 증액과 함께 리브 골프 대회처럼 컷오프 탈락이 없는 대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회에 참가해 최하위를 기록한 선수도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PGA 투어는 휴식이 부족하다는 선수들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브 골프에 대한 PGA 투어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셈이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Home Remodeling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넷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